

개혁 정치



회·당·의·새·물·결

민주개혁정치모임

더 크고 더 바르고 더 정의로운 민주당을 위해



이사장 박 영 숙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정권교체 및 민간민주정부수립을 염원하는 여러분들과 8백만 지지자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너무도 큰 좌절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패권주의와 용공음해 그리고 여성정치외식의 벽을 넘지 못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을 5년후 수권정당으로 키우려나, 아니면 만년야당으로 만족해야 하나냐의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당 최고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3월 11일 전당대회가 바로 그 갈림길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제1야당 아니 유일야당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질지, 최고지도부는 어떤 인물로 구성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바르고, 더 정의로운 국민정당으로 거듭 태어나 집권 민자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5년후 대체세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금의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키워낼 역사적 책임은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의 몫이라고 감히 자임합니다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내에서부터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해 민주당을 정책정당, 국민정당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의 창립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장서 깨끗한 도덕정치와 인간중심의 개혁정치를 실현할 때 민주당은 비로소 수권정당의 면모를 완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미래는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에서 저를 비롯해, 이부영 최고위원과 노무현 전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 개혁과 수권을 위한 최고지도부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끝으로 새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수권의 그 날을 향한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꿈들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대신합니다

전당대회와 민주당의 진로



제 정 구(민주개혁정치모임 상임운영위 간사)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은 또 다시 패배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선거를 통해 야당이 정권교체를 이룬 적이 한번도 없다. 부패한 자유당 정권이 4.19 혁명으로 붕괴한 후, 여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원내각제하의 여당으로 된 적이 있지만 5.16쿠데타로 인해 민주당의 승리가 정권교체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4대 대선패배는, 40여년 군부와 여당의 재 집권만을 경험하였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물론 재야와 야당정치인에게,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여 온몸을 던졌던 민주단체와 인사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평생을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김대중 대표의 정계 은퇴는 '참된 역사'의 의미를 모든 국민들에게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제 야당의 지도자였던 '후광'이라는 거목이 '양김시대종언'이라는 매스컴의 열띤 취재경쟁과 함께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져가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 야당사의 중요한 한장을 가르는 14대 대선패배와 김대중의 정계은퇴 직후에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전당대회를 놓고 말들이 많다. 순리론이니 당권후보분리론이니 우회론-일치론이니 하는 당권을 둘러싼 견해나, 집단이니 순수니 하는 지도체제를 둘러싼 여러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때로는 순수하게 제기되기도 하지만 때론, 자신이 처한 입장과 처지를 반영하여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민주당이 40여년 여당독주의 정치사에 어떻

게 종지부를 찍고 정치에 대한 실의를 넘어 불신과 무관심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믿음과 희망의 진정한 참여의 정치를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 즉 「수권 정당」의 관점에서 분명히 교정지를 필요로 있다

누가 무어라 하는 이번 전당대회는 분명히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토대를 마련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거목이 은퇴한 후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만을 앞세운 소극적 전당대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적극적인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나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거대여당의 파상적 공세를 차단하고 진정한 정당정치의 참모습을 보이고, 14대 대선의 실패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근본적인 개혁의 발판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후광'의 '살신의 정신'을 배워야만 한다

5년후 대권경쟁 정치제도가 바뀌더라도 집권 여부를 놓고 대권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을 치르기 전에 세번의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 그중 이번과 다음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철저히 자신을 개편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수권정당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는 새로운 지도력을 창출해내고 당조직을 전면 개편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새로운 인물을 만들고 당내 민주주의에 기초한 중앙과 지역의 기초조직 역량을 강화해내는 일이야말로 지금 전당대회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물

“

**이번 전당대회를 최대한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르는 길만이
우리 당의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조직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현실적 출발점**

”

만들기'와 '조직역량을 정비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는 다음 세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전당대회 모든 절차의 민주화와 공정선거의 실현이다

지금 우리 당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지도력과 조직체계의 정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번 전당대회를 최대한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르는 길만이 우리 당의 지도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조직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현실적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돈으로 자리를 사불려 한다든지, 계보나 연줄로 '한표'를 호소해서는 안된다. 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유포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태는 엄중히 심판받아야 한다. 당의 처지와 입지를 고민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무엇부터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사고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기존 야당의 습성에 빠져 40여년동안 정권교체를 못했던 우리 정치사의 숙원을 어떻게 풀다는 말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거 구태의연한 돈과 연줄, 계보와 흑색선전의 정치풍토에 후보와 대의원 모두가 쫓겨 박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커녕 만년야당의 지위조차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분단시대의 색깔론과 교활무도한 지역차별주의, 여당에게만 유리한 일방적 선거제도와 길들여진 언론의 관변보도, 그 밑 저변을 관통하는 금권관권선거로 무장된 지배구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철저한 민주절차와 공정선거를 통해 확립된 지도역량과 조직역량 뿐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확정시켜야 한다

정치풍토의 개혁과 당내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 지구당의 혁신과 민족경제의 부흥 및 통일시대 즉, 21세기를 주도할 당의 정책방향을 확정해야 한다

당권과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는 당의 개혁방안을 내놓고 진지한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 원내총무의 경선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민은 김영삼 차기정권의 가차없는 보복정치앞에 공중분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당을 보면서 김대중없는 민주당의 개편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당의 개혁과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없이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을 수는 없다

당의 전로를 놓고 깨끗한 내부경선의 과정

“

**'인물만들기'와
'조직역량을 정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

”





당의 개혁방안을 내놓고 진지한 정책대결을 벌여야 한다.

에서 믿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참신한 국민정당 정책정당으로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 열망에 부응하여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개혁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셋째, 당 조직역량의 확대강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야재편이다

아직도 재야에는 이 사회의 참된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평생을 바친 훌륭한 인사들이 많고, 이 사회발전의 방향과 방법들을 나름대로 모색해온 전문집단이 많이 있다 폭압의 군부통치하에서 체제비판의 이단으로 간주되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던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존립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지난 대선시기 전국연합과의 정책연대에 대한 평가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우리 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들을 과감히 정치권내로 끌어들이고, 당역량을 대폭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 한때 잘못된 정치상황에 이끌려 국민당으로 가야 했던 인사들도 그들의 새로운 정치의지가 확실하다면 과감히 영입해야 한다 이러한 재편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로소 대선패배와 김대중의 정계은퇴라는 공백을 메우고 거듭날 수 있다 전당대회는 우리 당 재편의 방향을 놓고 이런 모색들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한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앞에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목이 이루지 못했던 정권교체의 숙원을 기어코 이루어야 한다 흡사 예미의 살을 뚫고 새 삶을 얻는 살모사의 끈질긴 생명력과는 같이 우리는 대선패배와 김대중 은퇴라는 희생물의 토양위에 새정치문화의 싹을 키워야 한다

3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

화합과 전진 그리고 단결을 위하여



여익구(민주개혁정치모임 사무처장)

전당대회는 정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을 운영해 갈 핵심 당직자를 선출하고 당헌의 제정 및 개정, 정강 정책의 결정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서의 정치노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기 명망가 정당 또는 인물중심의 정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중적 정당에서는 여야당을 막론하고 조직화 정도에 따라서 당수, 집행부 선출 등과 함께 당을 정비해 수권정당으로서 또는 강력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지지자들의 계속적인 호응을 유도하는 기회로 삼아왔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의 경우 전당대회기간 동안 대회의 시작, 휴식, 종료시간을 당규예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자유당은 당 지도자 선거운동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의 완전공개와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의 상·하선 제정 및 이를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민주당은 집행부 위원 후보는 국가사회주의자, 파시스트당원, 인종차별주의자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서에 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세계 각국이 보다 효과적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전당대회규정을 두고 있다 일당독재국가 역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정책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국공산당 14차 전당대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규정되지않게 국가발전에 대한 신념과

민주적인 의식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례적으로 여 야당을 막론하고 대통령선거 또는 총선거에 앞서 전국의 지구당 조직을 정비하고 당의 대표, 대통령 입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름으로서 내부적으로 당을 재정비하고 외부적으로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강화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오는 3월 11일 치르게 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대통령후보를 선출하지는 않지만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당의 정책노선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당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민주지향적으로 개혁하여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강력한 야당,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안으로는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무책임과 불신, 그리고 후진적 정치현실과 사회정의실종 등을 극복해야

하며 밖으로는 세계사의 대전환기를 맞아 격변의 소용돌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해 창조성과 개혁의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대 대선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실패하였으며 김대중 전대표의 정계은퇴 결과를 낳게 되었다 대선의 패배원인을 철저히 분석, 규명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 원인중 특히 정권교체와 사회전반의 변화를 거부하는 전래적인 지배연합세력과 기득권세력의 현상 유지 성향이 예상외로 강했고, 그에 대응하는 제 계층의 연합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 대중논리개발과 조직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역성과 계층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제2창당의 기회로 삼

정책역량강화를 통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사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대안모색에
주력해야



아야 한다

우리나라 역대 야당의 지도체제를 살펴보면 당시의 당내 파벌, 세력형편에 따라 달라져 왔다 즉 한파가 다수세력이 되었을 때는 단일지도체제를, 비슷한 세력들이 존재할 때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왔다 야당사상 최초의 집단지도체제는 1950년대 민주당이 도입,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두번째 경험은 5.16 쿠데타이후 정치활동의 재개로 구 정치세력이 결집되었던 민정당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민주당에서 채택한 집단지도체제는 사상 네번째가 된다 일부 언론들은 벌써부터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의 성격과 그 성공여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과거 야당사를 보면 전당대회과정에서 특정인물중심의 압무가 벌어지고 급기야 당이 분열하기까지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다 만약 당권싸움에 집착한 나머지 개혁의지를 포기하고 당내 분쟁이나 일삼는다면 민주당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한 전근대적인 파벌집단으로 낙인찍혀 한국정치의 퇴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우려속에 등장했던 국민당이 1회용 정당으로 막을 내려 실질적으로 양당 체제에 들어서게 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양당체제 속에서 여 여정당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수용하는 선진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지배구조가 집권여당, 군부, 관료, 재벌 등과 같은 기득권세력을 주축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해결을 위해 군부, 안기부, 검찰, 경찰을 법적, 제도적으로 탈정치화시키고 직업공무원제, 행정의 정치적 중립화,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관계법령제정 등 정책산출기능을 통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사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와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원내총무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자유경선 실시, 능력위주의 공개인사, 청년과 여성의 참여확대보장 및 정책정당으로서의 구체성을 갖추어 국민들의 정책욕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지구당의 민주적 개혁을 비롯해 당내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하며 나아가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후진적 정치문화 및 파벌정치, 금권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과제로는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갖춘 범민주세력의 결집과 민주발전을 위한 개혁의지를 확고히 하여 완숙한 민주정치와 풍요로운 사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당을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해 화합과 단결 그리고 전진을 모토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



여성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자랑입니다.

- 1932년 평양 출생
- 1950년 전남여자고등학교 졸업
- 1955년 이화여대 문리대 영문과 졸업

40년간 소외된 여성의 권익옹호에 앞장서다

1970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198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석 부회장이 되어 여성운동의 기수로 나서다. 1985년 KBS 시청료 거부운동 여성연합회장과 1986년 부천시 성고문사건대책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고문철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독재정권의 폭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다.

김대중 선생과 함께 제1야당의 지도부를 지킨다

88년 3월 평민당 총재 권한대행으로 4.26총선에서 중앙선거 대책위원장의 소임을 다하다. 늘 최고지도부를 지켜 제1야당의 어머니로 통하다.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 이사장, 현재 민주개혁정치모임의 이사장으로서 인간중심 개혁정치의 상징이 되다.

발로 뛰는 여성, 환경의원

88년 국회보건사회위원회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다.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여성권익 실현에 앞장서다. 89년 「녹색의 진화」대표, 91년 (사)한국 환경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 되다.

국제적인 여성지도자

91년 85차 평양 IPU (국제의원 연맹)총회, 92년 4월 라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 한국위원회 공동대표로 참가해 국제적인 여성지도자로서 여성외교와 환경외교의 지평을 열다.

- 수상경력— 90년 환경기자클럽이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상」을,
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다.

더 크고, 더 바르고, 더 정의로운 민주당을 위해

최 민 희 (자유기고가)

화합과 조화의 상징

여성정치의 지평은 열릴 것인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유권자수에 있어서도 남성을 웃돌면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한사람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여성정치참여의 정도는 그 나라 여성지위를 역으로 나타내 준다는 명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논할 수준이 못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돋보이는 사람, 박영숙이 있다

30년동안 여성운동에 헌신해 오다 현실정치의 '기여가능성'을 보고 여성계 대표로 평민당 부총재로 입당한 여자, 정치권의 화합과 조화의 상징이 된 여자, 87년 대선후 궁지에 몰렸던 평민당 총재권한대행을 맡아 4.26총선에서 평민당을 제1야당으로 부상시킨 여자, 박영숙

박영숙의 영입은 그해 평민당이 가장 잘한 일로 꼽히기도 했다

13대 보사위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과 환경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동료의원들로부터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으로 꼽혔던 박영숙 최고위원은 집안에 들어가면 알뜰한 가정주부다 민중신학의 선구자인 안병무 박사(70)와 그의 아들 재권군(22 서울대 수학과 4년)과 꾸리는 율타리안 사는 이야기는 '화목'의 상징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박영숙의 특기는 '많은 음식을 빨리 만드는 것'이다 그의 취미는 햇살 좋은 날 창밖을 바라보며 차한잔을 마시는 것과 마음이 맞는 친구와 끝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러나 정치의 길에 들어선 박영숙은 이제 잠시도 여가가 없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 당무위원회에서 난 결정이 그에겐 대단히 의미가 깊다

—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여성할당제가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있는 일 아닌가요?

"김대중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직에

여성을 20% 이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정권교체는 이루지 못했지만 올바른 공약은 당내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중앙당 선출, 임명직에 여성 20% 할당제를 결정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김대중 선생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당내 여성지위향상의 중요한 발판이 될거라고 보구요. 더 나아가 정치권에 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여성정치참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랫동안 구상해 오신 일인가요?

“스웨덴같은 나라는 공직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같은 나라도 그와 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라든가 할당제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특위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할 때 여성관계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원안 그대로 거의 통과되었지요. 그런데 이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당내의 여성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우정 의원, 안상람 당무위원, 김방림 인권위 부위원장같은 분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분들의 뜻을 전하는 창구 구실만 했을 뿐이지요.”

남성 협조속 '할당제' 통과

오랫동안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오랜 전유물이었기에 정치는 남성들의 성역이었으며 '금녀(禁女)의 집'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연장하면 당연히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번에 여성할당제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 '기득권'들의 반대는 없었을까?

— 남성당원이나 당직자들에 반대는 없었습니까?

“오히려 남성 당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남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현재 여성의 지위가 월등히 낮고, 남성에 비해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이걸 수천년동안 여성이 억압받고 소외당해 온 결과인데, 남성과 같은 선상에서 완전히 경쟁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일정 수준에 오르기까지 남성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에 있어서 남성은 어른이고 여성은 갓난 아이와 같은데 똑같은 무릎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곤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위에 선 사람이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정치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 시점에선 민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일부 남성의원들이 이번 전당대회부터 여성최고위원 1석을 할당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박위원이 사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저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이번에 열심히 뛰어 여성 정치참여와 당내 여성지위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배수진을 친 심정인데... 더많은 지지가 있겠지요? (웃음)”

기울어진 곳 세우려고

정치의 길은 험난하다. 여성정치의 길은 특별히 험하고, 멀기까지 하다. 그걸 모르지 않을 그가 정치의 길에 뛰어든 것은 왜일까?

— 정계에 들어온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치는 생각도 안해봤드랬어요. 그런데 87

년 평민당 창당무렵 김대중 선생이 여성단체 연합측에 부총재를 포함한 주요당직을 맡을 여성 7인의 추천을 의뢰해왔습니다. 그때 대선을 앞두고 여성계에서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현실정치의 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평민당이 제물을 갖춘 후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집 아빠(안병무 박사)가 그래요. 참 당신들 여자들 틀렸다. 당이 어려울 때 들어가 도와야지 다 된 뒤에 들어가서 성과만 나누어 먹으려고 그러느냐구요. 곰곰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곧 입당해 창당을 도왔지요.”

— 부총재로 입당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왜 평민당을 택하셨습니까?

그건 두가지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는 김대중 선생에 대한 신뢰인데요. 우리 사회는 민주화문제, 민중생존권문제, 통일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4.26총선을 승리로 이끈다

그가 입당한 사실 자체가 평민당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었다. 그는 평민당 부총재로 들어와, 87년 대선실패후 김대중 총재가 잠시 일선에서 후퇴하자 총재권한대행을 맡아 박순천 여사에 이어 두번째로 야당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 4.26총선에서는 예상외로 뒤엎고 평민당을 제1야당으로 부상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환경, 여성분야에서는 두드

해결할 책임자가 김대중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한쪽만 치우쳐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호남쪽이 기울었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간 쪽을 끌어내리자는 게 아니고, 기울어진 쪽을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평민당을 택했지요.”

— 입당이후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사람들이 제가 평민당에 입당한 후 자주 물어요. 혹시 평민당에 여자화장실이 있느냐구요. (웃음)”

— 여자화장실이 있었습니까?

“물론이지요. 저보다 먼저 당에 들어와 일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구요. 그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또 평민당에는 재야출신들이 많아서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일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러진 의정활동을 해 90년 환경기자클럽이 주는 제1회 「올해의 환경인 상」을 92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을 받았다.

— 여성에 대해선 당연한 것이지만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수준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건 과분한 칭찬이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지요. 그러니까 74년부터예요. 아를교육문제로 프리랜서 여성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주도했는데 주로 여성들을 모으고 교육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때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함께 공부한 일이 있었지요. 그뒤로 쑥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이를테면 박영숙은 환경운동의 선구자였다. 74년 이른 시기에 환경불모지에서 외로운 생명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아들이야기가 나왔으니 화제를 바꿀 시간이 된 모양이다. 내친 김에 개인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영숙 최고위원의 고향은 평양 1933년 3남3녀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그는 9살때 아버지를 잃은 뒤 누룩공장을 하는 할아버지가 살던 만주로 이주해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정미여중에 입학, 졸업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월남해 광주에 안착했다. 그는 55년 전남여고를 졸업했고 그해 이화여대 영문과에 들어갔다. 그후 59년에서 61년 사이에는 필리핀 극동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와 사회사업학교 사회사업학과에서 수업했다. 어린 시절 박영숙 최고위원은 밝고 명랑했으며 인정많은 소년였던 모양이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엄마없는 어린아이들의 엄마가 될테야.”

그가 안병무 박사와 결혼한 것은 67년. 안박사의 나이 47세, 그의 나이 37세 때였다.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재권군) 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안병무 박사의 표현을 빌면 “자기세계를 상호존중하는 특수한 친척관

“

이번에 열심히 뛰어 여성정치 참여와
당내 여성지위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계”이다. 그러나 스스로없이 농담을 주고 받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완전한 결합에 가깝다는 것이 주위의 평.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정생활과 정치생활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

—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 대다수가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시달린다고 하던데요. 박위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둘 다를 잘해보려고 저도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두가지를 다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집 아빠와 아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주지요. 사실 정치인이란 개인생활을 ‘물수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집 아빠가 건강이 안좋아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신경쓰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 않아요.”

더 큰 민주당을 향한 약속

언뜻 보기에 그는 '수려한 외모'에 걸맞은 화려한 정치생활 5년을 보낸 듯 하다 그러나 침예한 남성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인 한에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 특별히 여성정치인으로서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해야될 수 없이 많지요. 조직,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열세지요. 현실적인 정치력도 그렇고.”

— 지역구출마를 거절했을 때 박위원에 대해 조금은 빈정거리는 듯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13대 의정활동을 끝으로 정치생활을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의원 공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역구에 나가라는 안이 나왔지요.”

아무 준비도 없는 그는 몹시 당황했다 ‘손쉬운 전국구만 노린다’는 등의 비난을 들을 때에는



15대에는 반드시 지역구로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생각입니다. 여성들의 잠재된 힘과 청년들의 젊은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민주당을 더 크고, 더 바르고, 더 정의로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서게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남모를 가슴앓이로 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당차원의 지원이 보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지역구출마는 뻔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다 여성정치의 열악한 현주소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남편 안병무 박사의 건강문제도 그가 정치생활을 정리하려는 큰 이유였다

— 지난해 5월 최고위원경선에 출마하며 다시 뜻을 세운 걸로 아는데요.

“제가 정계를 떠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저를 보낸 여성계에서 거세게 항의해 왔어요. 저마저 떠나면 여성정치참여의 길은 더 요원해진다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더군요.”

일반국민들로부터도 수없이 격려전화가 걸려왔다 당신같은 사람이 남아서 정치를 해야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당신은 남아야 한다…… 그는 최고위원경선에 출마해 당당 4위로 당선되었다

— 지역구 출마도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5대에는 반드시 지역구로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생각입니다 저의 지역구 출마는 지역구 출신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순교하는 심정으로

지역구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면서 다시 정치를 생각한다 생명이 존중되고 평등이 이뤄지며 평화가 보장되는 희망의 정치의 깃발을 그는 결코 내릴 수 없는 정치인이다 그는 이번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정성으로 정치를 키우겠다”고 새롭게 결심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잠재된 힘과 청년들의 젊은 힘이 보태질 때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그는 이번 최고위원경선에서 인간중심의 도덕, 개혁정치, 여성지위향상, 젊은 정치인 양성, 환경복지시대의 생활정치실현, 당내 민주화 및 당내 여성지위향상 등을 공약했다

— 4명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을 찍자… 박위원 홍보팜플렛에 쓰여 있던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의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시는 기분으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죠. 선거운동하시는 셈 치시구요(웃음).

소외된 이웃과 여성 사랑을 현실정치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 뿐입니다 젊음과 ‘성숙한 지혜’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당도 민주당 뿐입니다 저는 그런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민주당을 더 크고, 더 바르고, 더 정의로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서게 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못다한 정권교체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 1942년 서울 출생
-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 동아일보 자유언론운동 주도
-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초대 상임의장
- (구)민주당 부총재
-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개혁정치모임 상임운영위원

〈저서 및 역서〉

「희망의 정치로 가는 길」
「언론과 사회」외 다수

개혁과 단결의 밑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 영 (민주당 최고위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진

먼저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저의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저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저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의 최고위원선거에 다시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는 통합 민주당이 출범한 이래 두차례에 걸쳐 최고위원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91년에는 통합 당시의 합의에 따라 최고위원으로

선임되었고, 92년의 전당대회에서는 자유경선을 거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는 당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몇가지의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법적 대표 1인의 공동대표제'를 제안하여 야권대통합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한 이래, 92년 5월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자유경선 실현, 자정선언과 정치비용공개를 통한 깨끗한 정치운동전개, 민주개혁정치모임의 결성,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당 지도부 선출방법타결, 원내총무 경선제 도입 등 몇가지의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동안 미력이나마 당의 단합과 개혁

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대단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신 대의원 여러분들의 뜻, 그리고 당의 개혁과 발전을 향한 저의 약속 등을 생각한다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마땅히 해내어야 할 몇가지 성과에 자족하지 않고, 그동안의 활동을 성찰하여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서 우리 야당은 항상 패배하기만 하는 것인가, 정권교

체는 불가능한 것인가, 정말로 수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선패배의 충격속에서 수많은 당원 동지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듭된 생각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다한 정권교체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 수권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그 새로운 대열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미래를 열어가야 할 민주당의 좌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주당의 좌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주의의 퇴조에 따른 이념대결의 종식, 세계질서 재편의 움직임, 격화되는 경제전쟁 등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화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20세기의 마지막 10년동안 인류는 근래에 없던 격변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변화속에서 한반도가 자칫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변화의 격랑이 우리의 존재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나가고,

우리는 그 변화의 파도를 멀어져서 힘없이 지켜보아야 하는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우리의 생존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정치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변화와 개혁'을 내건 김영삼정부가 출범하였고, 그에 따라 정국의 흐름과 여야관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첨예한 정치적 쟁점들은 상당부분 퇴색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여야관계가 불가피하게 요청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
그것이 새로운 민주당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수권을 다짐하는 우리 야당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변화의 뒤끝을 따라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좌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야당은 정권에 대한 반대와 투쟁만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독재투쟁이 급선무였던 당시의 정치적 환경속에서 그것은 분명 정당한 존재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수권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 도덕성, 정책적 능력, 국민속에 뿌리내린 조직적 기반 등의 제반 조건을 갖추어 나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정권교체의 꿈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난날 야당의

가치기준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권과의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승리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히 민주당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은 하루하루의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시다 그래서 미래의 문제에 눈을 돌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앞에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21세기를 향한 희망의 설계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민주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정당이 나라를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 그것이 새로운 민주당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의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시대의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정당만이 앞으로의 정치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 시대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국정 전반의 영역에 대해, 그리고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민주당도 변화와 개혁의 길로 가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영삼정부마저도 변화와 개혁을 자신들의 기치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 출범한 김영삼정부가 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는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김영삼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혁의 과제를 성실하고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그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민주당도 필요한 경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조짐들을 볼 때, 그리고 김영삼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권내 수구세력의 존재를 감안할 때 김영삼정부 아래에서의 개혁이 말처럼 커다란 한계를 갖게 될 것임을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약속했던 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국민들이 기대를 걸 곳이 민주당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

“

**민주화, 도덕화, 현대화, 합리화라는
이 4가지 방향의 개혁이야말로
민주당이 거듭나는 원천입니다.**

단결의 과제는

**개혁이나 민주화의 과제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 속에서도
우리는 당의 단결을
도모해 갈 수 있습니다.**

”

리는 나라의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자세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발전을 위한 자기개혁의 노력을 과감히 기울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 발을 딛은 이래 정치개혁의 과제를 일관되게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의 개혁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저는 당의 개혁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의 요체는 당의 민주화, 도덕화, 현대화, 합리화라는 네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몇몇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하며,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여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의 체제를 현대화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기준으로 운영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 도덕화, 현대화, 합리화라는 이 네가지 방향의 개혁이야말로 민주당이 거듭나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단결의 밑알이 되고자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당의 단결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의 개혁은 분열과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누구를 배척하는 일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지 않고서는 당의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람만이 참여하는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사람의 열혈보다 열사람의 한결음이 중요함을 알기에, 저는 모두가 함께하는 개혁, 단결속의 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굳은 단결이야말로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단결의 과제는 개혁이나 민주화의 과제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속에서도 우리는 당의 단결을 도모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굳게 뭉쳤던 기억을 되살리며, 그때의 결의로 다시 단결할 때 강력한 민주당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11일이면 전당대회가 열리고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선거가 있게 됩니다

당선되는 사람이 생기고 낙선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모두가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함께 힘을 합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헌신하는 철착제역할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화려한 조명을 받는 무대위의 배우가 되기보다는, 무대뒤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단결을 도모하는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개혁과 단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당면과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개혁과 단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가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 당의 개혁과 단결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결과들에 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평가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한 정치선언을 지지하는 시민의

1992년 6월 18일 오후 7시 장소: KOEX 회관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당의 재정을 공개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구상

마지막으로, 최고위원경선에 나선 후보로서 당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저의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최고위원후보로 나선 많은 분들이 당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제안들을 내놓고 계십니다. 당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부터 당의 민주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약속들만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당의 주요정책을 대의원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대사안은 대의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 후보도 시·도지부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구당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겠습니다.

유급제, 의료보험제 등으로 지구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구당 간부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구당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당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고비를 이겨낸다면 역사와 국민은 우리당에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당의 재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낭비적인 지출을 억제하고 긴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재정운동을 하겠습니다.

네째, 당의 체제와 기구를 현대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강화를 통한 정책기능의 확대, 종합자료실의 설치와 운영, 중앙당과 지구당 간의 전산망설치, 당 전략기획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당을 현대화시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다섯째, 당의 국제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당의 국제적 진출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직자 해외연수기회 확대, 외국정당과의 교류강

화를 추진하며,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최고위원후보로 나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깨끗한 선거를 향한 저의 결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준비과정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도 저의 이러한 주장이 공감을 얻어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대선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이목을 생각할 때, 이번 선거를 얼마나 훌륭히 치르느냐가 민주당의 앞길을 좌우하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민주당의 선거에 금품이 오가는 등의 혼탁양상이 생겨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는 엄청난 손상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품수수나 같은 행위가 일체 없이 오직 땀땀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부디 민주당의 앞길을 좌우할 이번 선거가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수십년간 모진 세월을 헤쳐온 정통야당의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진합시다. 꿈도 아픔도 함께 나눕시다. 그 한복판에 저 이부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 아닌 누가 오늘의 과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이 고비를 이겨낸다면 역사와 국민은 우리 당에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동안 몸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 1946년 경남 진영 출생
- 1966년 부산 상업고등학교 53회 졸업
- 1975년 제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변호사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지역구)
- 1992년 민주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개혁정치모임 상임운영위원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며……

노 무 현 (민주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에 나서기 전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당을 위해 오랜동안 헌신해오신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선배님들을 모셔다 단지 대우나 헤드리는 자리라면 감히 제가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최고위원회가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으로 최고위원이 되려고 합니다.

비록 초선이긴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자신과 더불어 동지들을 위기에 빠뜨린 적은 없습니다. 어떤 8선의원은 3당통합으로 그와 동지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4선의원은 자신만이 아니라 동지들까지 궁지에 몰아넣

었습니다. 3당야합거부, 야권통합! 그것은 옳은 길이었고, 동지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경륜이 높으신 여러 선배님들보다는 아직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사람을 키우고 단련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 주신다면 앞으로 민주당을 더욱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지난 14대 대선때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도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받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당장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당직의 여성할당 제도 우리가 대선때 약속했던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이 공약들이 당헌에 조기 제도화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

고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인 지역감정문제는 양보와 실천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목소리만 높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13대 국회 노동위 시절부터 당리당략에 구애받지 않고 평민당과 민주당의 공조체제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지역당을 철폐하기 위한 야권통합운동의 선두에 서서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부산에서 받은 수도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신자로 불리워졌습니다. 김영삼을 심판하기 위해 부산에서 나섰다가 낙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개인적인 희생은 있었지만 저는 후회없이 실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년간 변호사로서 익힌 논리력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당의 높은 자리에서 지시만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당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항해사만이 배를 순항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젊어져야 합니다.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열정과 정책능력을 겸비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은 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의견을 늘 경청하고 올바른 의견은 반드시 당의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외지구당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후 총선에서 원내 다수당, 5년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는 원외지구



당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당의 재정과 정책결정 등 당의 모든 운영이 원외지구당을 키우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원외가 되고 보니 원외의 어려움과 아픔을 실감했습니다. 적어도 원외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원외의 어려움을 대변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71년 전당대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재선이었던 김대중 전대표가 불과 15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전당대회에서 경선에 나섰을 때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신화였습니다. 민주당의 대의원들은 신화를 창조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신화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나누어 가지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일꾼, 노무현

손 숙 (연극인)

“연극쟁이가 정당의 전당대회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참 부담스럽네요. 괜히 남의 집안 경사에 누가 되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 부탁을 받고 나서 좀 고민이 되었다. 대들보를 다시 세우고 새단장을 하는 집안의 일꾼들에게 격려되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수고하십니다. 잘 하세요.’라고 말하면 되는건가? 아니면 기와장을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어때요. 아아니 거기 현관의 칠이 마음에 안들어요’라고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라도 거들어야 하는 건지.

영원히 연극쟁이 손숙으로 남기를 바라는 내가 자주 이런 글을 쓰면 혹시 오해라도 사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이런저런 공상(?)들을 물리치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 이것저것을 요구해 보기로 했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한

국민이라면 나도 자격이 있다’고 속으로 큰 소리치면서...

제일 먼저 민주당이 대선패배로 인한 우울함을 빨리 떨쳐버리고 있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옆집 국민당이 주택조합사기를 당한 사람들처럼 멍하니 길가에 나앉아 있는 것을 보면 측은하기도 하지만 역시 현정사 48년을 이어온 정통야당의 맥은 민주당이야. 당연한 생각이다.

민주당은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전보다도 더 활기차게. 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거듭날 것을 믿는다. 무엇보다 기적을 만드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파심이겠지만 지난번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받았던 이상한 느낌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다. “사람은 똑똑한데 김대중이 당이라서”, “김대중이가 인물은 인물이야, 하지만... 아 마 선거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었던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못해 분통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인물은 좋은데 선
거에는 지는 기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마음이 그대로 선거에
투영되지 않아 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진
정 국민을 대표하는 6,000여명의 민주당 대의
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키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은 민
주당이 뚝뚝 뚝치 거대여당을 잘 견제하면서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열심히 뛰어들

**지금 국민은 민주당이 뚝뚝 뚝치 거대여당을 잘 견제하면서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열심히 뛰어들고
보고 싶어 한다.**



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국
민의 마음이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노
무현 변호사같은 분들이 나서게 된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한다 글을 맺기 전에 영국으로
떠나시기 이틀전에 식사초대까지 해주시며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김대중 후보의 건강을
빌며 노래시합 한번 하자며 서글서글한 목소
리로 안부전화를 해온 민주당의 일꾼 노무현
변호사님의 건승을 빈다

청량한 바람, 노무현

이재운(작가)

내가 아는 노무현님은 흔히 말하는 '정치가'
가 아니다 물론 그 분은 정치가임에 틀림없
지만 내 머리속에 입력된 정치가라는 단어풀
이와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기자, 경찰, 국
회의원 따위는 모르고 지내면 손해, 알고
지내면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것이 정치가에
대한 뜻풀이었다고나 할까. 이러한 감정을 가
진 내가 왜 '정치가 노무현'을 존경할까.

우리 부부가 노무현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분이 이른바 청문회 스타가 되기 훨씬 전
시골에서 막 올라온 듯 질박한 얼굴을 한 초
선의원시절이었다 그리고 우리 부부 역시 무
명작가 시절이었다

그런데 노무현님은 인상에서부터 살아온
배경, 초선의원으로서 펼치는 담대한 정치스
타일 등을 거침없이 보여주었다

그러자 내 처(권경희 추리작가)는 즉각
팬레터를 보냈다

머리속으로 이랬으면 저랬으면 상상하던 일,
능력이 없어 우물쭈물하던 일, 용기가 없어
쭈뼛쭈뼛하던 일들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심
시오 하는 것이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
다가 감옥도 가고 옥도 먹어가면서 잘 싸우
라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잘먹고 잘살기
위해 돈벌기 바쁘니까 일요일에는 쉬어야 하
고, 공휴일에는 놀러가야 하니까. 이렇게 국
민된 입장에서 갖는 관심은 욕심일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런 욕심을 잘 포장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주십사 하고 구구절절이
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상소문을 쓰듯이 써
보냈던 것이다

어느 일요일, 편지를 받은 노무현님은 그가
살던 여의도에서 대방역으로 가 전철을 탄
다음, 시청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우리가
살던 구의역까지 와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마침 외출중이어서 내 처만 역 근처로 나가



그는 정치고비마다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며
정도를 잡아왔다.
떨어질 줄 알면서도
다른 지역 후보들을 위해
부산에서 목이 터지도록
민주개혁을 외쳤다.



만났다. 그날 내 처는 그동안 상상해 왔던 정치가의 규범이며 도덕, 이상 따위를 신나게 떠들어대었다고 한다. 내 처로서야 책임질 일이 아니었고, 그것이 실현되든 말든 실컷 떠들면 스트레스는 해소될 테니까 그야말로 밀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잘난 척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런지 그뒤 노무현님은 청문회 스타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인기를 받았다. 우리는 그때부터 결성된 노무현 후원회에 가입하여 정치 스트레스를 풀어왔다.

지난 해에는 부산 동구 선거유세장까지 내려가서 한 표를 호소했다. 그런데 그때 그 분이 낙선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 역시 낙선할 줄 뻔히 알면서도 초지일관 유세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낙선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목이 쉬도록 유세를 하던 그 분은 아마도 민주당 전체 분위

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 떨어질게 뻔한 노무현, 김정길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백중지세인 자네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마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으리라.

노무현님은 하찮은 우리 부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던 분이다. 그분의 지역구도 아닌 그저 백성 한사람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는 정치고비마다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여 정도를 잡아왔다.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해왔다. 떨어질 줄 알면서도 다른 지역 후보들을 위해서 목이 터지도록 민주개혁을 외쳤다.

만일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재운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노무현님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내게는 '노무현'하면 머릿속이 다 시원해지는 청량한 바람같은 분이므로.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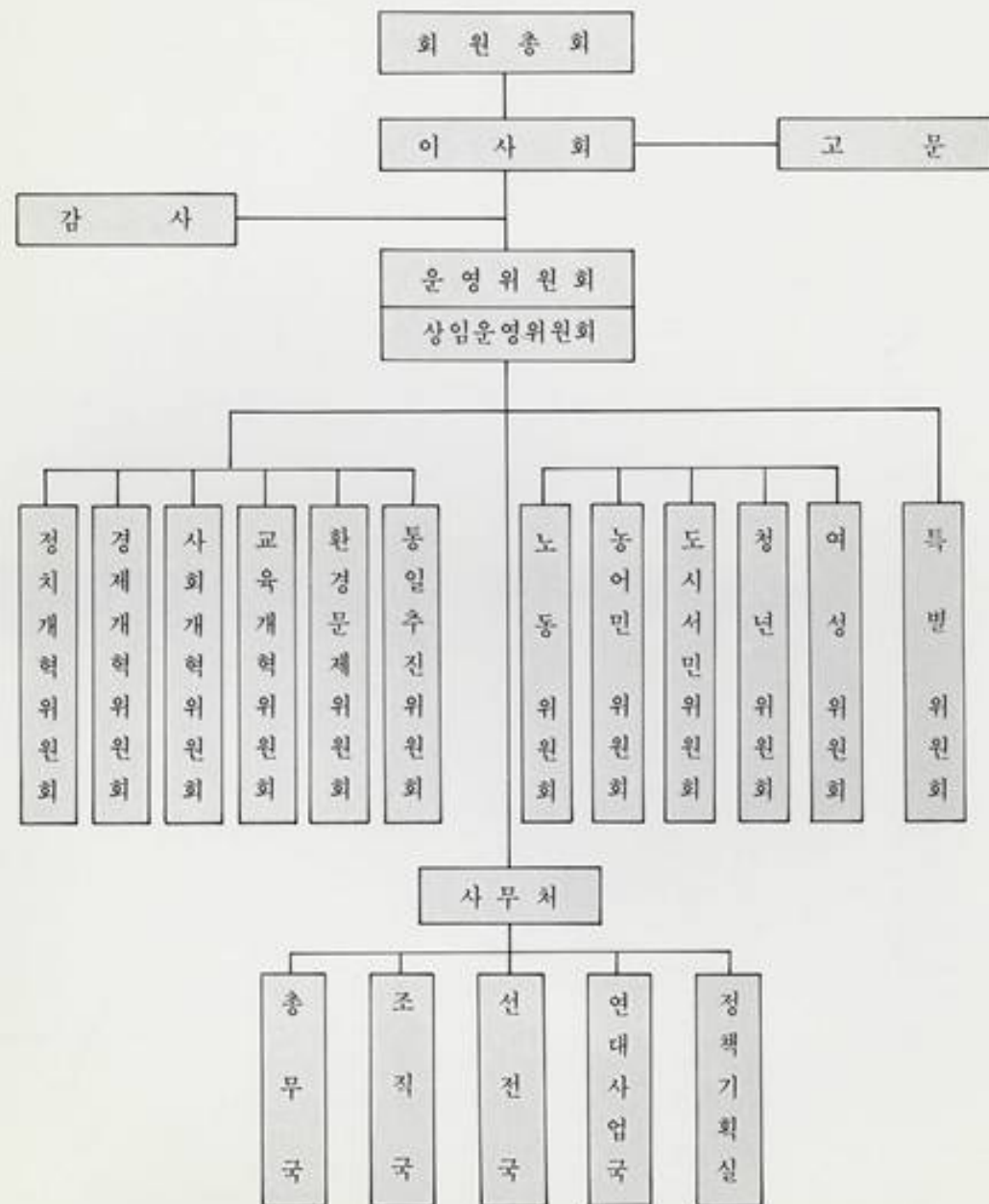
강구철(대전 동구 을 지구당 위원장)
고광진(서울 동대문을지구당 위원장)
고영하(서울 노원갑지구당 위원장)
고진화(청년위원회 위원장)
권운상(충북 제천지구당 위원장)
김도연(인천시지부 사무처장)
김동현(경기 안산용진지구당 위원장)
김민석(서울 영등포을지구당 위원장)
김범태(원광대 교수)
김병구(경북 영일 울릉지구당 위원장)
김병오(국회의원, 서울 구로병)
김부겸(민주당 부대변인)
김영진(국회의원, 전남 강진완도)
김영진(박계동 의원 보좌관)
김용석(민주당 환경특위 부위원장)
김원웅(국회의원, 대전 대덕)
김자동(사회운동가)
김재규(부산 금정지구당 위원장)
김정태(민주당 경기 수원권선갑지구당 위원장)
김진태(대구 남구지구당 위원장)
김학민(전 신민당 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남근우(민주개혁정치모임 조직국장)

노동길(전북도의원)
노무현(부산 동구지구당 위원장)
도호기(민주당 경북 성주·칠곡군 지구당 위원장)
박계동(국회의원, 서울 강서갑)
박기환(민주당 경북 포항지구당 위원장)
박석무(국회의원, 전남 무안)
박성수(민주당 전산실장)
박영숙(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장)
박우섭(민주당 부대변인)
박창규(경남 마산회원지구당 위원장)
배갑상(부산 북구을지구당 위원장)
배용진(농민운동가)
백신종(경남 거창지구당 위원장)
서동우(경남 울산남구지구당 위원장)
서정용(전 신민당 전당대회 부의장)
서중현(대구 서구을지구당 위원장)
성종대(경남 창원을지구당 위원장)
손광운(경기 연천 포천지구당 위원장)
송철호(경남 울산중구지구당 위원장)
신언관(충북 청원군지구당 위원장)
안경률(부산 북구갑지구당 위원장)

안양로(전 민주당 대전중구지구당 위원장)
 안희대(경북 예천군지구당 위원장)
 양경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양대현(한남대 교수)
 여익구(민주개혁정치모임 사무처장)
 오대영(충남 천안지구당 위원장)
 원혜영(국회의원, 부천중구을)
 우원식(임채정 의원 보좌관)
 유남선(강원 춘천지구당 위원장)
 유인태(국회의원, 서울 도봉갑)
 윤강옥(5.18 광주민중항쟁연구소 소장)
 윤치영(전 수세대책위원장)
 이강철(대구 중구지구당 위원장)
 이경해(전북도의원)
 이광희(경남 김해시 군지구당 위원장)
 이규택(국회의원, 경기 여주)
 이길재(국회의원, 광주 북구을)
 이부영(국회의원, 서울 강동갑)
 이상수(서울 중랑갑지구당 위원장)
 이상익(경남 창원갑지구당 위원장)
 이우정(국회의원, 민주당 여성특위 위원장)
 이충렬(민주개혁정치모임 연대사업국장)
 이해찬(국회의원, 서울 관악을)
 이 협(국회의원, 전북 이리)
 이호용(인천 남동구지구당 위원장)
 이태권(경남 밀양지구당 위원장)
 이흥록(부산 진구갑지구당 위원장)

임수진(전북도의원)
 임익근(서울시의원)
 임채정(국회의원, 서울 노원을)
 장광근(구 민주당 동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장기욱(국회의원, 국회 보사위원장)
 장만준(강원 홍천지구당 위원장)
 장순식(전 평민당 평택지구당 위원장)
 장영달(국회의원, 전북 전주완산)
 정기영(충북 충주중원지구당 위원장)
 정병두(민주당 노동국장)
 정상용(국회의원, 광주 서구갑)
 정성현(농민운동가)
 정수일(민주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정천석(경남 울산동구지구당 위원장)
 정태근(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제정구(국회의원, 경기 시흥군포)
 조상태(부산 중구지구당 위원장)
 조성준(민주당 경기성남 중원분당지구당 위원장)
 조철구(인천 서구지구당 위원장)
 조흥규(국회의원, 광주 광산)
 최병욱(민주당 당무위원)
 최승영(민주당 강원 정선군지구당 위원장)
 최정명(전 민주연합 사무차장)
 최희원(민주당 정책실장)
 한영애(서울 용산지구당 위원장)
 홍순우(경남 통영 충무지구당 위원장)
 황백현(부산 진구을지구당 위원장)

기구표



민주개혁정치모임

은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고
민주세력의 대연합을 실현하여
국민들의 민주정부 수립 열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 양심적
정치활동으로 일관해 온
19명의 국회의원과 60여명의 지구당
위원장 등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통일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농어민 도시서민
청년 여성 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중적 요구와 지향을 수렴하고
정책적 연대를 이루기 위한
부문위원회의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개혁정치모임

서울·마포구 용강동 494-10호
전화 : 711-1271~4/717-6292
FAX : 711-1275/717-9517